

■ 제주도교육청·한라일보가 함께하는 '숲학교' (4)오름중학교

“숲과 새들의 친구가 돼 고민 들어보세요”

큰부리까마귀·큰오색딱따구리·족제비 이야기 '인기' “단풍 보고 낙엽 밟고 자연정화활동까지... 즐거웠어요”

“중학생인 여러분들처럼 숲도, 나무도, 새들도 모두 고민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만큼은 여러분들이 자연의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연의 고민이 무엇인지, 친구로서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김완병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학예연구사가 숲학교를 찾은 오름중학교 아이들에게 들려준 첫 말이다. 사춘기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스스로 고민을 풀고, 자연의 소중함은 무엇인지, 지를 함축적으로 쉽게 풀어 얘기했다.

제주도교육청과 한라일보가 함께하는 숲학교'가 올해 네번째로 16일 한라산둘레길 돌오름길에서 열렸다. 이날 2학년 학생 27명과 교사 2명이 동행했다. 아이들은 오름만에 학교와 학원 등 일상에서 벗어나 단풍을 구경하고, 친구들이랑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며 숲길을 걸었다. 붉게 물든 단풍길을 보고, 땅 위로 떨어진 폭신한 낙엽을 밟고, 가끔 숲에서 들려오는 새소리를 들으며 숲속여행을 했다. 오감을 모두 자극하는 시간이다.

숲길을 걷던 새 전문가인 김완병 박사는 삼나무숲에서 호도의 새로 알려진 까마귀의 이야기를 담은 '반포지효(反哺之孝)'를 풀어

다. 반포지효는 흥초라 여기는 까마귀도 자란 뒤에는 늙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준다는 이야기다. “지금 저기 보이는 큰부리까마귀는 깃털이 검지만 호도를 하는 새로 잘 알려져 있죠. 새들은 동지가 작기 때문에 아기새가 일찍 독립해서 살 수 있도록 어미새들이 먹이로 유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마치 어미새가 어린 새에게서 먹이를 받아먹는 것처럼 보여서 만들어진 고사성어가 바로 반포지효입니다. 새의 모습을 빗대 부모에게 호도를 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지요.”

김 박사는 이어 새들에게 있어 고목의 중요성과 함께 인근에서 찾은 족제비똥을 학생들에게 보여주며 이들의 생태에 대한 이야기 들려줬다. “제주도를 상징하는 큰오색딱따구리는 큰 고목을 파서 동지로 쓰고 난뒤 작은 새들에게 자신의 보금자리를 양보하는 배려 깊은 새예요. 그리고 족제비는 영역표시를 하기 위해 자신의 배설물을 이곳저곳에 남기는데, 여기(족제비똥)를 보면 소화가 안된 딱정벌레와 털들이 보이죠? 족제비는 새들도 잡아먹는 아주 빠른 녀석이지요.”

숲길탐방에 나선 아이들은 처음에는 힘들다며 다소 투덜거렸지만 금세 숲학교의 매력에



오름중학교 학생들이 16일 한라산둘레길에서 열린 '제주도교육청과 한라일보가 함께하는 숲학교'를 찾아 김완병 박사가 들려주는 생태 이야기를 들었다. 사진은 족제비똥을 관찰하는 아이들.

빠져들었다. 아이들은 스마트폰으로 곱게 물든 단풍은 물론 족제비똥까지 찍는 열정(?)을 보였다. 그리고 되돌아오는 길에서 멧돼지가 남긴 흔적을 찾아보고, 일부 탐방객들이 버린 쓰레기를 주우며 자연정화활동도 벌였다.

고승환·강기량·박현정·김지훈 학생은 “큰부리까마귀 이야기랑 족제비똥 관찰하는 시간이 제일 재미있었고 기억에 남는다”며 “처음에는 큰 관심이 없었는데 숲속에서도 더 많은 재미

있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을 모았다.

김민경·강재형 교사는 “숲학교는 학교 내에서만 활동하던 아이들이 숲을 찾아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유익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며 “친구들과 숲에서 걷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여기에 눈높이에 맞는 해설이 곁들여지며 애들의 집중도 역시 좋았다”고 전했다. 백금탁기자

‘감귤지켜 드림팀’ 운영 경찰, 민관합동 24시간

제주지방경찰청은 18일부터 연말까지 '마을별 감귤지켜 드림팀'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감귤 수확 시기를 맞아 농산물 도난 사건을 예방하고, 사건 발생 시 신속히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구성된 '감귤지켜 드림팀'은 마을을 담당하는 행정기관과 농·감귤, 마을이장, 선과장 운영자, 자율방범대, 감귤재배 농민 등으로 구성돼, 지구대·파출소 주도하에 24시간 활동하게 된다.

주요 활동은 마을별로 '우리마을 감귤키퍼'를 모집한 후 블랙박스가 설치된 감귤키퍼의 차량을 농로 방향 또는 저장 창고 등 취약지 주변을 촬영할 수 있도록 곳곳에 주차하고, 감귤 도난사건 발생 시 수사자료로 제공하는 등 범죄 감시망을 한층 강화하게 된다.

또한 경찰은 일정액 이상 감귤 도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농협 등과 협조해 해당 지역 조합원들에게 '감귤도난 주의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게 된다.

특히 수확을 앞둔 감귤밭이 있거나 집을 장시간 비워 도난이 염려되는 감귤 농가를 대상으로 사전 예약을 받아 순찰하는 '예약 순찰제'도 시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수확한 농산물은 CCTV가 설치된 창고에 보관하는 등 자율 방범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김현성기자

올해 김장비용 전통시장 27만5000원

(사)한국물가정보 분석결과

대형마트 구입비 29만8000원

채소류 가격 ↑ 양념류는 ↓

올해 4인 가족 기준 김장비용은 전통시장 구입 시 27만5000원, 대형마트는 29만8000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17일 (사)한국물가정보에 따르면 지난해와 비교해 채소류 가격은 오른 반면 양념류는 새우젓을 제외한 대다수 품목에서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배추(20포기 기준)의 경우 전통시장은 지난해 7만원에서 올해 10만원으로 가격이 올랐고, 대형마트는 5만9600원에서 9만9800원으로 가격이 상승했다.

무(10개 기준)를 보면 전통시장은 지난해 1만원에서 올해 2만원으로 상승했다. 대형마트도 1만4800원에서 2만5900원으로 가격이 1만

원 이상 뛰었다.

배추를 포함한 채소류의 경우, 올 여름까지는 낮은 가격에 거래됐으나 가을장마와 연이어 찾아온 태풍의 영향으로 평년 대비 비교적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고춧가루, 마늘, 생강 등 양념류로 쓰이는 부재료는 어획량 감소로 가격이 오른 새우젓 외에 대부분의 품목이 지난해보다 낮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물가정보 관계자는 “본격적인 김장철이 시작돼 수요가 증가하면 채소류는 지금보다 가격이 조금 더 오르겠지만, 부재료는 작황이 워낙 좋아 지금 가격에서 큰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올해 김장은 예년보다 2~3일 늦게 담그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민간 기상기업 케이웨더의 '김장 예상 적정시기' 자료에 따르면 중부지방과 남부내륙은 11월 하순에서 12월 상순, 동해안은 12월 중순, 남해안은 12월 중순에서 하순이 김장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고 밝혔다. 김정성기자 kks@ihalla.com

제주 비온 뒤 기온 ‘뚝’

지난 주말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진 제주지역은 찬 바람과 낮 기온이 떨어져 다시 추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8일부터 중국 북부에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찬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다. 아침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낮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추운 날씨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아침 기온은 13~16℃(평년 7~10℃), 낮기온은 14~17℃가 되겠으며 19일 아침 기온은 8~10℃, 낮 기온은 11~14℃가 되겠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4시를 기해 18일 새벽 제주도 전역에 강풍 예비특보와 제주도 앞바다 등에 풍랑 예비특보를 내린 상태다.

기상청 관계자는 “18일 아침까지 강한 바람과 천둥·번개로 인해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겠다”고 밝혔다. 김현성기자

“제2공항 갈등 해결의 길 열려” 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환영 회견

제주지역 112개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결의안'이 지난 15일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오래된 숙제인 도민 공론화를 통한 제2공항 갈등해결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이날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일부 의원의 이견으로 인해 약간은 퇴색했지만 새롭게 출범하는 특별위원회는 이 모든 갈등까지 꺼안고 나가야 한다”면서 “주어진 6개월 활동기간 동안 다양한 갈등 해소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도민의 열망에 부응하는 계획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상민기자

“갈등해소 특위 수정안 유감” 제2공항성산추진위 입장 표명

제2공항 성산읍추진위원회는 16일 제주도의회 '제2공항 건설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수정안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이날 제주도의회 '공론조사 특위 구성안' 수정과 '특위 구성'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통해 특위 구성에 제2공항 반대론자인 민주당과 측근을 중심으로 구성된 김태석의장의 행태를 강력 규탄했다.

추진위는 “특위 구성은 중립적으로 구성해야 도민이 공감한다”며 “그러나 김태석의장은 반대론자들을 앞세워 측근을 둘러리 세우는 구태 정치의 낡은 수법으로 도민을 우롱하고 도의회를 농락하려 하고 있다. 우리는 반대론자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구성된 특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성윤기자

2019 제주감귤국제마라톤 성공개최를 축하합니다.

Limes Orangevill Pension & Yeats Pension

라임오렌지빌 & 예이츠 산장

연초록 새벽색의 안개환이 있는 예이츠 산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라산 중턱 넘어 푸르른 숲 한가운데에, 청명한 공기 한 대접 드리고자 예이츠산장이 태어났습니다. 숲 속을 거닐며 천연 삼림욕에 푹 빠져 보세요. 예이츠산장의 건강함 나누들이 뿜어내는 맑은 산소만으로도 고객님의 지친 몸과 마음에 평온이 올 것입니다.

Limse Orange 나무와 일상을 얘기하는 꼬마 제제그 맏고 아름다운 눈망울이 가만 내려다 봅니다. 라임오렌지저렴요 항상 상큼함과 신선함을 드리는 라임오렌지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지중해풍의 멋진 외관과 최고 시설의 라임오렌지빌... 언제나 따뜻한 바람이 가슴을 채워주는 남쪽의 서귀포항을 바라보며 넓고 푸른 바다와 아름다운 섬들을 가슴에 담고 있는 라임오렌지빌은 오렌지색 저풍을 얹은 하얀 건물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정 광 윤 서귀포교회 은퇴장로 송 옥 희 서귀포교회 은퇴선사

라임오렌지빌_064-767-3888 · 4888 예이츠 산장_064-767-3746, 733-3746 황금빅버거예이츠_064-733-6298